

## 17세기 전반 시가사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

- 17세기 전반 정치·사회 변동과 시가사(2) -

최재남\*

<차례>

1. 서언
2. 17세기 전반 정치·사회의 변동과 시가사의 추이
3. 17세기 전반 시대의 변화와 관련한 시가사의 과제
4. 소결

###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표는 17세기 전반 정치·사회의 변동과 관련하여 시가사의 추이를 살펴서 17세기 후반과 그 이후 시가사의 지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17세기 전반 정치·사회의 변동과 관련한 시가사의 추이에서 주목할 내용은 여악의 재설치, 사부에 대한 예우, 무반의 위상 변화 등이다.

여악의 재설치하고 장악원 기악을 다시 설치하면서 지역에 있던 가기를 서울로 불러올리면서 레퍼토리의 교류가 일어나게 되었다. 관서의 가기 향관과 문향의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대부가에서 가기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 개인의 사연에 활용하면서 이들 연향 문화에 변화가 일어났다.

사부에 대한 예우를 통하여 자기 당파의 도덕성을 해명하기도 하고 이를 통하여 <훈민가> 등의 보급이나 <고산구곡가> 한역에서 보듯 당파의 정치적 목표에 활용하기도 한 것이다.

17세기 전반 전쟁과 정변으로 무반의 위상이 변화하거나 변세의 무반이 기녀들과의 수작을 통하여 무반을 통한 시가 향유가 광범위한 현상으로 나타났고 장만·정충신·구인후 등 공신들을 중심으로 일변으로 무변 풍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확대되고 있었다.

한편 시대의 변화와 관련한 시가사의 과제는 기상의 저상 문제와 상시·우국의 태도, 궁정과 외부의 연결과 관련한 시가, 사행역관의 위상과 가객으로의 전환 등이다.

<철령가>에서 야기된 기상의 저상 문제가 사대부 내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 일상의 유학적 상식을 터득한 무인이나 생원은 오히려 우국(憂國)과 비분(悲憤)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었다.

궁정의 인물과 외부의 연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남녀 사이의 문제는 『청구영언(진본)』 『만황청류』와 『무명씨』에 수록된 작품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장현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행역관의 위상과 가객으로의 전환은 17세기 후반 이후의 실상으로 확산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17세기 전반, 여악, 가기, 사부, 당파, 무반, 상시, 우국, 유점사, 역관, 가객

## 1. 서언

17세기 전반은 선조 말년[~1608]과 광해군[1608~1623], 인조[1623~1649] 시대를 가리킨다. 임진·정유의 왜란을 수습하고, 계해반정[1623]을 거쳤으며, 정묘·병자의 호란을 겪게 되면서 책임과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는 일로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17세기 전반에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시가사의 추이를 이해하는 시각이 매우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여, 17세기 전반 시가사를 크게 세 축으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첫째 17세기 이전의 태평시대의 문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 대한 이해, 둘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 셋째 변화와 관련한 시가사의 과제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서언과 첫째 축은 별고<sup>1)</sup>로 발표하고, 본고에서는 둘째와 셋째 축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전반부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7세기 전반 시가사 이해를 위하여 첫째 17세기 이전의 태평시대의 문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 대한 이해, 둘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 셋째 변화와 관련한 시가사의 과제 등 세 축으로 살펴본 전반부에서는 첫째 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며, 둘째와 셋째 축은 따로 다루고자 한다.

17세기 이전 문화의 지속을 위한 노력과 그 과정을 다시, 감찰계회의 지속과 <상대별곡>의 풍류, 전승 노래의 수습과 속편·대응편의 마련, 중앙 권력 세력의 연회 전통과 그 의미 등으로 나누어 살핀다.

<상대별곡>은 사헌부의 위상과 사정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이 배인 노래로, 사헌부에 근무한 사람들은 상대계(霜臺契), 감찰계(監察契), 총마계(驄馬契) 등의 이름으로 계회(契會)를 조직하여 공무 이외에도 그들 모임에서 <상대별곡>을 부르면서 집단적 결속을 이어갔다. 그런데 17세기 전반에 서울에 기반을 둔 이들 사대부들은 현실의 변화로 사헌부의 위상이 변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헌부에 근무한 경력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집단적인 결속을 강화하고 <상대별곡>이 지닌 풍류의 내면을 이으려고 하였다. 이들 중앙 기반의 관리들은 사헌부가 권력의 중추를 차지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상대별곡>의 함의까지 포함하여 그들의 집단적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17세기 전반에 전승하는 노래를 ‘번가(飜歌)’, ‘번사(飜辭)’, ‘언가(諺歌)’ 등으로 수습하거나 한역하였는데, 이는 노래의 민멸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일차적이지만 개별 작품의 경우 “사군(思君)”, “사미인(思美人)”, “연군(戀君)” 등의 상황이나 내용과 관련된 맥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님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의 내면을 토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 최재남, 『17세기 전반 시가사 이해를 위한 예비적 고찰-17세기 전반 정치·사회 변동과 시가사(1)-』, 『한국시가연구』 39집, 한국시가학회, 2015, 5~35쪽.

한편 앞 시기에 창작된 기존의 작품을 전범으로 인식하고 속편 또는 대응편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품을 마련한 사실도 주목할 수 있다.

서울 근처에서 부원군이나 부마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서호나 동호를 비롯한 한강 주변에 별서를 마련하여 연회를 즐기는 전통이 16세기 이후 이어졌는데, 정치의 중심에 섰던 대부들도 동참하였다. 그런 가운데 16세기 초반의 상림춘(上林春), 16세기 중엽의 석개(石介) 등의 가기를 보호하고 풍류의 자리를 이어가게 한 후원자의 역할을 주목할 수 있다. 17세기 전반에는 칠이(七伊), 옥아(玉娥) 등의 가기가 이러한 자리의 중심을 차지하였고, 김제남이 국구가 된 뒤에 집안에서 가기(歌妓) 등을 동원하여 연회와 잔치를 베풀었던 사례에서 보듯 정치적 변화로 주도층은 바뀌지만 17세기 이후에도 서울의 중요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연회 자리에서 부른 노래의 레퍼토리를 주목할 수 있다.

이상의 세 장에서 검토한 내용은 17세기 전반 시가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에 중요한 지남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17세기 후반 이후 시가사의 추이를 살피는 데 참조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득윤(李得胤, 1553~1630)이 인조반정 초에 공조 정랑에 제수되어 부름을 받고 서울에 왔다가 뒤에 괴산 군수로 제수되어 사은하는 길에, 도성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는, “아직도 쇠소리[金聲]가 거세게 나오고 있으니, 난리가 끝이 안 났다.”<sup>2)</sup>라고 했었는데, 이 쇠소리가 17세기 전반의 민심과 사회 현상을 반영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전반 시가사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를 정치·사회의 변동과 시가사의 추이, 시대의 변화와 관련한 시가사의 과제 등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정치·사회의 변동과 시가사의 추이에서는 여악의 재설치와 함께 가기를 통한 레퍼토리의 교류, 사부에 대한 예우와 시가의 대응 양상, 무반의

2) 『인조실록』 22권, 8년 5월 28일(정미), 『국역인조실록』 10, 222쪽.

위상 변화와 그들의 시가 향유 양상 등을 검토하고, 시대의 변화와 관련한 시가사의 과제에서는 기상의 저상에 대한 경계와 상시·우국의 태도, 궁정 주변 인물과 외부 세력의 연결로 나타난 시가의 변모 양상, 사행역관의 위상과 가객으로의 전환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 2. 17세기 전반 정치·사회의 변화와 시가사의 추이

### 1) 여악의 재설치와 가기를 통한 레퍼토리의 교류

자전을 위해 풍정(豊呈)을 한다는 명분으로 광해군 2년(1610) 2월에 여악을 재설치<sup>3)</sup>하고, 5월에 장악원 기악을 다시 설치하면서 각 읍의 기생을 서울로 불러올리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레퍼토리의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들 기생을 국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터라 각 읍에서 올라 온 기생을 사대부 집안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국가의 행사에 동원하게 되었는데, 사대부들은 개인적인 연회에 이들 가기(歌妓)를 독점하기도 하고, 임금은 여악과 나희(儺戲)를 즐기면서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임취정(任就正)과 같은 인물은 임금의 뜻에 영합하여 높은 벼슬에 임용되기도 하였다.

임취정은 자기 형인 임수정(任守正)의 첩의 딸을 후궁으로 들여보내 소용이 되었다. 소용은 용모가 뛰어나고 약아서 일에 익숙했으므로 왕이 총애하였다. 이로써 임취정이 오래지 않아 승지가 되었다. 왕이 여악과 나희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매번 큰 거동이 있을 때면 반드시 그것을 거행할 것

3) 『광해군일기』 권26, 2년(1610) 3월 4일(경진).

을 청하였다. 이 때문에 흥애가 나날이 높아가 10년 안에 이이첨과 거의 비슷하게 귀해져서, 심지어는 서로 알력이 있기까지 하였다.<sup>4)</sup>

그리고 다음 사례에서 보듯 관서의 가기 향란(香蘭)과 문향(文香)의 서울 유입은 관서 지역의 레퍼토리가 서울에서 연행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향란의 경우 관서 지역에서 향유한 레퍼토리는 <관서별곡><sup>5)</sup>, <죽지곡><sup>6)</sup> 등으로 확인되고, 이미 이정구<sup>7)</sup>, 유몽인<sup>8)</sup>, 이민성<sup>9)</sup> 등도 서도에서 이들을 만나거나 노래를 듣고 있었던 가기이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종묘에 고하는 대례에 교방 가요(教坊歌謠)와 정재가 있어야 하겠기에, 평안도 기생 중에서 가사를 잘하는 향란과 문향 등을 각기 소속되어 있는 관청으로부터 올려보낼 것을 이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향은 마침 서울에 와 있다가 전 진랑 허함(許涵)의 집에 피신하여 숨어 있습니다. 장악원에서 차관을 보내 찾았으나 허함은 문을 잠근 채 숨겨 두었고 일을 아는 종까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끝내 찾아내지 못한 채 본조에 이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큰 경사를 만나 창기를 두고 있는 사대부들이 허함을 본받아 내놓지 않는다면 대례가 풀이 우습게 될 것입니다. 허함

4) 『광해군일기』 권70, 5년(1613) 9월 25일(경진).

5) 許筠, 『丙午紀行』, 『惺所覆瓿藁』 권18, 『한국문집총간』 74, 289쪽, “妓香蘭, 家兄所眷者. 能謳善談笑, 令唱白家關西曲”

6) 姜籀, <再遊西關>, 『竹窓集』 권4, 『한국문집총간』 속14, 47쪽, “香蘭猶唱竹枝曲 芳草分留鸚鵡洲”

7) 이정구, <箕城妓香蘭, 夢雲, 香眞來謁於清華館. 戶外三屨. 竝被偷兒竊去. 卽席書贈戲之>, 『月沙集』 卷之十, 『東槎錄下』 『한국문집총간』 69, 319쪽.

8) 유몽인, <大同江舟中. 贈歌妓香蘭>, 『於于集』 卷之一, 『西嶺錄』, 『한국문집총간』 63, 313쪽.

9) 이민성, <練光亭感舊遊>, 『敬亭集』 卷之六 『燕槎唱酬集上』, 『한국문집총간』 76, 285쪽.

을 무겁게 다스리고 문향은 즉시 자수하게 하여, 법을 멸시하고 함부로 구는 습성을 징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두 기녀는 다 관서 지방의 명창이었다. 왕이 성기(聲伎)를 좋아하여 보고 싶어 하므로 예조가 뜻을 받들어 아부하느라 이렇게 아뢰는 것이다. 이때에 교방에는 여악이 극성이었고 이를 경례 가요(慶禮歌謠)라고 말하였다. 이들이 서울에 모여들자 왕은 이름 있고 예쁜 여자만을 뽑아 대궐로 불러들여 온종일 가무를 즐기고 여러 날 밤을 내보내지 않자, 폐인(嬖人)들은 제각기 예쁜 기생을 데려다가 노래와 춤을 가르쳐서 궁중에서 베푸는 연회를 이바지하게 하였다. 사대부집의 여종들도 연줄을 따라 시연(侍宴)에 출입하였고, 진출을 피하는 사람도 모두 여종을 바치는 것으로 발판을 삼았다. 노직(盧稷)의 노비가 일찍이 대궐에 들어가 연회에서 모셨는데, 왕이 이르기를, “너의 주인 장준완(蔣俊琬)을 지금 첩사에 제수하였으니 행하로 적당할 것이다.” 하였다. 여러 창기들도 다투어 은전을 빌어 관직을 팔기를 내폐(內嬖)나 친속들과 차이가 없게 하였으므로, 뇌물을 바치는 길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sup>10)</sup>

광해군 말년에 이르러 사대부들이 이름난 기생을 첩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대례에 참석시키지 않는 일이 빈번해지고, 낮은 관원이나 유생까지도 이러한 관례를 답습하면서 여악의 재설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장악원이 아뢰기를,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대부들이 이름난 기생들을 모두 첩으로 데리고 있는데, 본원의 사령들은 그 집 문에 발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놓지 않는 자는 법사에 보

10) 『광해군일기』 권119, 9년(1617) 9월 8일(경오).

내 죄를 다스릴 것을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뢰는 대로 하라. 평상시에는 비록 대군이나 왕자나 재신이 데리고 사는 기생첩이라 하더라도 모두 대례에 참가시켰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서 비록 하찮은 관원이나 유생일지라도 유사가 나오게 하지 못하니, 이는 너무나도 직무에 태만한 것이다. 내보내지 않는 가장(家長)은 관직을 삭탈하고 유생은 수금하여 중히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sup>11)</sup>

그런데 반정 이후에 새로 권력을 잡게 된 김류와 이귀와 같은 사람들도 사사롭게 관창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쇄환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보아, 17세기 전반 사대부 사회의 관례로 굳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교하기를,

“찬성 김류(金鑾)와 이귀(李貴)가 지난날에 거느리고 있던 서방 사람들에 게서 모두 자녀를 두었다고 하니, 그 모자를 모두 면천해 줌으로써 원훈인 가문의 자녀가 천인의 명적에 이름이 실려 죽을 때까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김류와 이귀가 모두 관서의 관창을 데리고 있으면서 쇄환시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sup>12)</sup>

이러한 와중에 반정을 통하여 즉위한 인조의 경우에도 사사롭게 여악을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sup>13)</sup>

그리고 유몽인이 증언하듯 실제 이승형(李升亨)이 은개(銀介) 등에게 가사(歌詞)를 교습시키기도 하고<sup>14)</sup>, 이이명이 정리한 바와 같이 이귀(李

11) 『광해군일기』 179권, 14년(1622) 7월 22일(병진).

12) 『인조실록』 7권, 2년(1624) 9월 6일(정사), 『국역인조실록』 3, 8쪽.

13) 『인조실록』 30권, 12년(1634) 9월 9일(임술), 『국역인조실록』 13, 206~207쪽.



貴)의 첩인 가자(歌者)가 ‘금일금일지곡(今日今日之曲)’을 잘 불렀다는 일화<sup>15)</sup>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가기의 레퍼토리가 시가 향유의 성격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2) 사부에 대한 예우와 시가의 대응 양상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고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인군자(正人君子)의 삶을 실천한 스승을 내세우는 일은 명분과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광해군 2년(1610) 9월에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항을 문묘에 종사하게 되었는데<sup>16)</sup>, 그 이듬해에 정인홍이 상차하여 이언적과 이항을 비판하는 일이 일어났다.

정인홍이 상차하여 문원공 이언적과 문순공 이항을 [문묘에 종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비방하니, 차자를 궤내에 두고 내리지 않았다.] … 인홍이 마침내 상차하여 지금 맡고 있는 찬성의 직을 사임한다는 명분에 의탁하여 언적과 항을 심하게 헐뜯고 <문묘 종사의 부당함을 말하였다.> 그 차자의 대략에, “신이 젊어서 조식(曹植)을 섬겨 열어주고 이끌어주는 은혜를 중하게 입었으니 그를 섬김에 군사부 일체의 의리가 있고, 늦게 성운(成運)의 인정을 받아 마음을 열고 허여하여 후배로 보지 않았는데, 의리는 비록 경중이 있으나, 두 분 모두가 스승이라 하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고 찬성 이항이 조식을 비방한 것을 보았는데, 하나는 상대에게 오만하고 세상을 경멸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높고 뻗뻗한 선비는 중도를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장을 숭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운에 대해서는 청은(淸隱)이라

14) 『광해군일기』 권126, 10년(1618) 4월 8일(정유).

15) 李頤命, 『漫錄』, 『疎齋集』 권12, 『한국문집총간』 172, 306쪽.

16) 『광해군일기』 33권, 2년(1610) 9월 5일(정미).

지목하여 한 조각의 작은 절개를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원통하고 분하여 한번 변론하여 밝히려고 마음먹은 지 여러 해입니다.

...(중략)...

이황은 두 사람과 한 나라에 태어났고 또 같은 도에 살았습니다만, 평생에 한번도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었고 또한 자리를 함께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결같이 이토록 심하게 비방하였는데, 신이 시험삼아 그를 위해 변론하겠습니다. 이황은 과거로 출신하여 완전히 나가지도 않고 완전히 물러나지도 않은 채 서성대며 세상을 기롱하면서 스스로 중도라 여겼습니다. 조식과 성운은 일찍부터 과거를 단념하고 산림에서 빛을 감추었고 도를 지켜 흔들리지 않아 부름을 받아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이 대변에 괴이한 행실과 노장의 도라고 인식하였으니, 너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중략)...

사신은 논한다. <정인홍의 차자는 오로지 이언적과 이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아, 언적과 이황을 어찌 쉽게 공격할 수 있겠는가. 언적과 이황은 학문이 끊어진 뒤에 분발하여 대업(大業)에 잠심하여 깊은 뜻을 천명하고 어두운 사람들을 깨우쳐 유림의 모범이 된 지가 벌써 45년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진 사람, 불초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그가 대유임을 알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하루아침의 언론으로 갑자기 공격하여 깨뜨릴 수 있는 것이겠는가.> ...(중략)... 더구나 세상이 두 선비를 존중한 지가 오래 되었고 배향을 청한 것이 몇 해째인데 어찌하여 전에는 묵묵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운운하는 것인가.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건대 임금을 험박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개 인홍의 사람됨이 편협하고 사나우며 식견이 밝지 못한데 방자하게 함부로 지어내어 다시금 돌아보고 거리끼는 것이 없었으므로 세상에서 이르는 현인군자 치고 그의 비방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일찍이 자기편의 무리를 사주하여 상소를 올려 성혼(成渾)을 헐뜯었고 또 이이(李珣)를 매우 심하게 비방하더니, 이때에 이르러 다시 두 선비를 이처럼 힘써 공격하였다. 저 인홍 같은 자는 시문의 쓸데 없는 가라지나 사류를 해치는 좁도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sup>17)</sup>

정인홍이 자신의 스승인 조식(曹植)과 성운(成運)을 옹호하면서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을 비판한 것은 오현(五賢)의 문묘 종사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면서, 『관서문답(關西問答)』에서 야기된 해묵은 감정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금도(禁度)를 넘어서는 일이라 그 파장은 심각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다른 당파에서는 이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다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왕에게 조광조, 이황, 이이의 문집을 열람하게 권하는 일은 자연스런 일처럼 보이는데, 실상 이이를 조광조, 이황과 동등한 위치에 두려는 포석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업이 아뢰기를,

“... 중종조 때 조광조(趙光祖)의 경연 강의를 『유선록(儒先錄)』에 실려 있는데, 은미한 말과 심오한 뜻이 분명하여 사람들이 모두 지금까지 전하여 외우고 있습니다. 이황의 문집도 세상에 유행하는데, 『퇴계집』이라 합니다. 장소(章疏)와 서찰이 의리가 분명하여 상께서 친히 열람하실 만합니다. 이이는 선왕조의 유신으로 별호를 율곡이라 하는데 역시 문집이 있습니다. 봉당을 타파하는 설과 백성들을 소생시키는 데 대한 말이 더욱 시속의 폐단에 절실한 것들입니다. 만약 한가하실 때 이들을 아울러 예람하신다면 이들 3인을 경연에 시강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유선록』과 『퇴계집』은 내전에 있을 때 보기도 했으나 『율곡집』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

하였다.<sup>18)</sup>

자신들의 사부를 예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른 사람들의

17) 『광해군일기』 39권, 3년(1611) 3월 26일(병인).

18) 『광해군일기』 50권, 4년(1612) 2월 6일(신미).

사부를 비판한 정인홍의 사례가 계기가 되어 인조반정 이후 서인 쪽에서 이이·성혼의 문묘 종사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는 자기 당파의 도덕성 해명의 방향과 연결되어 있었다.

실제 시가사의 추이에 있어서 사부에 대한 예우가 사부와 동학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당파성을 띠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철의 신원과 함께 <훈민가> 보급을 기획한 점<sup>19)</sup>도 이러한 맥락과 상통한다. 한편 정인홍 당파가 몰락한 뒤에 서인·노론계를 중심으로 이이의 <고산구곡가>를 한역하고 보급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sup>20)</sup>을 지속시킨 점은 <고산구곡가>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이들 당파의 목표와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육가>의 전승에도 이러한 의식이 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무반의 위상 변화와 시가 향유의 성격

1592년 이후 비변사<sup>21)</sup>가 정책 결정의 중심기관이 되면서 기존의 의정부 체제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견제의 기능을 담당했던 삼사의 위상도 그만큼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핀 감찰계의 조직과 같은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무반의 위상과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광해군 초에 무과만을 개설하여 북북군(赴北軍)을 편성한다거나, 여러 차례 전쟁과 정변을 거치면서 무반 공신이 양산된 점도 주목할 수 있다.

19) 최재남, 『훈민가 보급의 경과와 그 의미』, 『고시가연구』 21집, 2008, 319~343쪽, 『노래와 시의 율림과 그 내면』, 보고사, 2015에 수록.

20) 이상원, 『조선 후기 <고산구곡가>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사, 2004, 233~258쪽.

21) 『비변사등록』은 광해군 9년(1617)부터 고종 29년(1892)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예조가 아뢰기를,

“<점련(粘連)한 병조 관문(兵曹關文)에 운운하였습니다.> 과거를 설치하여 인재를 취하는 데는 그 뜻이 있습니다. 문무는 진실로 어느 한 쪽도 폐할 수 없는 것인데 무과만을 개설합니까? 상께서 어떻게 재결하시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난후의 근규(近規)에 따라 무과만을 개설하라.”

하였다.[이때 부복군을 위하여 별도로 과거를 설행하여 무사를 널리 취하였다.]<sup>22)</sup>

무반에 대한 배려에 대하여 사헌부 등에서 견제를 하기도 하였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고산리(高山里)는 바로 서방의 큰 진인데 장차 성을 쌓는 역사를 하게 되었으니, 새 침사를 마땅히 극진히 가려야 합니다. 정충신(鄭忠臣)은 천출인데다 재기가 과연 합당한지 알 수가 없으며, 조산(造山)에서 옮겨 제수하면 조산 역시 방어하는 지역이라 정체(政體) 역시 매우 구차스럽습니다. 못 사람들이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여기니, 체차를 명하소서. 평안 병사 유휘(柳珩)은 관질이 높은 무신으로서 조정의 사체가 중함을 모르고 친한 바에 가리워 사사로이 묘당에 문보(文報)하여, 마치 제배(除拜)를 지휘하는 것처럼 하였으니 매우 형편없습니다. 추고하여 죄를 다스려 무부의 교만한 습성을 징계하소서. 남포 현령(藍浦縣令) 이완(李莞)은 관직 생활이 형편없어 오로지 자신을 살찌우는 것만 일삼아, 모리배들과 결탁해 대소의 공물을 모두 방납하도록 허락하고는 민간에서 갑절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원망이 길에 가득해 보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sup>23)</sup>

22) 『광해군일기』 12권, 1년(1609) 1월 20일(계묘).

23) 『광해군일기』 18권, 1년(1609) 7월 27일(병오).

이러한 가운데 17세기 초반 일당백(一當百)의 무사로 뽑혀 회령에 간 울산 출신의 박계숙(朴繼叔, 1569~1646)의 <부북일기>와 신출신으로 경성(鏡城)에 간 그의 아들 박취문(朴就文, 1618~?)의 <부방일기>를 통해서 무변 풍류의 일단을 살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박계숙이 경성에서 금춘(今春)이라는 기생과 주고받은 시조<sup>24)</sup>는 무변과 기녀의 수작이라는 현장성과 함께 시가 향유와 전승에서 무반의 역할을 주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 광해군 10년(1618) 강홍립을 중군하였다가 귀향한 이진문(李振門, 1573~1630)이 남긴 <경변당가><sup>25)</sup>는 변세의 기녀들이 불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 변세를 중심으로 무반과 기녀의 시가 향유의 구체적 실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조우인(曹友仁, 1561~1625)이 광해군 8년(1616) 경성판관(鏡城判官)으로 부임하여 <출새곡>을 지으면서 남긴 『제출새곡후(題出塞曲後)』에서,

안타까운 것은 경성이 곧 북쪽 오랑캐의 군막이라, 비록 기악이 있으나 늘 무변들과 섞여 있어서 늘 이악(俚樂)을 찾아서 모두 음란하고 외설스러운 말이고, 고아한 노래를 부르며 투호놀이를 하는 고사는 대개 빠진 것 같다. 비록 이 노랫말을 관현에 올리고자 하나 쓸 데가 없지 않으랴? 그러므로 노래가 이루어지자 문득 상자 중에 갈무리하고 뒷날 돌아가면 다만 스스로 펼쳐 보면서 그윽하고 근심스러운 것을 펴면 좋을 것이다.<sup>26)</sup>

24) 『부북일기』 1605년 12월 27일, 최재남, 『관서·관북 지역의 시가 향유 양상』, 『한국고전연구』 24집, 2011, 38~40쪽.

25) 박준규, 『경변당가고-신자료 봉사부군일기를 주로 하여』, 『모산학보』 3, 동아인문학회, 1992, 신경숙 외, 『고시조문헌해제』, 2012, 500~501쪽 참조.

26) 曹友仁, 『題出塞曲後』, 『頤齋集』, 卷之二 雜著, 『한국문집총간』 속012, 303쪽, “所恨鏡乃北戎幕也, 雖有妓樂, 而常與鷗弁混處, 故尋常俚樂, 盡是桑間淫褻之詞,

라고 한 바와 같이 사대부 풍류와 무변 풍류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현실이 실제 17세기 전반에 일어나고 있던 변화라고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뒷날 공신으로 뽑힌 장만(張晩, 1566~1629), 정충신(鄭忠信, 1576~1636), 구인후(具仁厚, 1578~1658) 등의 구체적 무신 계열 작가를 확인하면 17세기 전반 이들의 시가 향유가 새로운 변화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다음 기록은 18세기 전반의 서울 무변들의 풍류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풍류가 실제로 17세기 전반의 변세의 무변 풍류에서 이어진 것이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실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고 있다.

임금이 석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특진관 구성임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말하기를,

“문과 무는 갈래가 다르니 문과로 진출한 자는 마땅히 문예를 숭상해야 하고 무과로 진출한 자는 마땅히 무예를 숭상해야 하는데, 듣건대 지금의 무관[武弁]들이 오로지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히지 않고 심지어 시가를 읊조리며 세월을 보내는 자가 있다고 한다. 경은 장신이니 모름지기 이 무리들을 신척하여 무예에 전념하도록 하고, 경도 또한 여러 장신들과 모여서 회사하는 것이 좋겠다.”<sup>27)</sup>

### 3. 17세기 전반 시대의 변화와 관련한 시가사의 과제

#### 1) 기상의 저상에 대한 경계와 상시·우국의 태도

이항복(1556~1618)이 철령을 넘으면서 지은 <철령가>는 당대에 큰

---

而雅歌投壺故事，則蓋闕如也。雖欲被此詞於管絃，無所用諸，故詞成，輒藏之篋笥中，他日歸來，祇自展觀，以暢幽悃之爲好也。”

27) 『영조실록』 53권, 17년(1741) 1월 23일, 『국역 영조실록』 17, 139쪽.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정구는 학문하는 신하의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상이 저상되는 것을 염려하는 입장을 제시했다.<sup>28)</sup>

이러한 태도는 오랜 세월 글을 읽으면서 학문을 한 선비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힘을 얻어서 당당하고 화평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움에서 말미암은 슬픔을 담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 그 슬픔으로 인하여 기상이 저상되는 것은 바람직한 정서의 방향이 아니라고 경계한 것이다.

<칠령가>를 <수조가>에 견주어 있는 것은 구체적인 곡을 가리킨다기보다 원망스럽고 처량한 음조를 지닌 노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신희의 다음 노래에서 말한 상성(商聲)에 대한 경계와 상통하는 것이다.

步虛子 못춘後에  
 與民樂을 니어하니  
 羽調界面調에 客興이 더어세라  
 아히야  
 商聲을 마라 히저물가 흐노라

- 『靑丘永言(珍本)』 1 45

그러나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 알게 모르게 비가(悲歌)<sup>29)</sup>가 널리 불려지고, 권변(權變)의 성격을 지닌 계면조(界面調)가 자연스럽게 연주되면서 정서의 방향과 악곡의 레퍼토리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변풍의 시대를 대표하는 후정화(後庭花)<sup>30)</sup>가 유행하게 된 것도

28) 최재남, 『이정구의 가곡과 풍류에 대한 인식 고찰』, 『반교어문연구』 32집, 2012, 210~215쪽, 『<칠령가>에 대한 반향의 두 시각』, 『국문학연구』 29호, 2014, 65~74쪽.

29) 이덕일의 <우국가>나 이정환의 <비가> 10수를 예로 들 수 있는데, 특히 이정환은 이항복의 손서이기도 하다. 남구만 찬, <묘표>(『국조인물고』 중)

30) <후정화> 또는 <후정곡>의 향유와 전승에 대한 별도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정환(李廷煥, 1604~1671)의 <비가> 가운데 한 수에서는 칠실의 <비가>를 환기하면서 탁주로 시름을 풀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거사 어린 거사  
 잡말 마라스라  
 漆室의 悲歌를 杼라서 슬퍼 흐리  
 어디셔  
 濁酒 혼준 어디 이 실람 풀가 흐노라

- 『송암유고』 10-10

이렇듯 우국(憂國), 상시(傷時) 등의 인식과 맞물려 <우국가>, <비가> 등의 작품이 출현하면서 당국자(當局者)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시대와 역사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상시와 우국의 태도는 반정과 호란을 겪으면서 드러난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앞에서 살핀 기상의 저상에 대한 경계가 사대부 내부의 문제인 것과 견주어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나, 무인인 이덕일은 임란과 혼정에 대한 우국을 생원인 이정환은 병란에 대한 비분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전반의 경우에도 정치·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그 태도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집정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자신의 내부를 통어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일상의 유학적 상식을 터득한 무인이나 생원은 오히려 우국과 비분(悲憤)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조 3년(1625) 무렵에 다음과 같은 노래가 민간에 전승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반정을 통한 집정 세력이 사람들에게 기대를 주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때 여염 사이에 또 상시가(傷時歌) 한편이 떠돌고 있었는데 대개 시사를 풍자하고 훈신을 지척한 것이었다. 그 가사는 이렇다.

아, 너희 훈신들아  
스스로 뽐내지 말라.  
그의 집에 살면서  
그의 전도를 점유하고  
그의 말을 타며  
그의 일을 행한다면  
너희들과 그 사람이  
다를 게 뭐가 있나.  
嗟爾勳臣 毋庸自誇  
爰處其室 乃占其田  
且乘其馬 又行其事  
爾與其人 願何異哉<sup>31)</sup>

이와 함께 인조 6년(1628) 광주(廣州)의 사인 이오(李晤)가 올린 상소에서, “일단 훈신과 귀척들이 조정을 가득 메운 뒤로 의지할 곳 없는 백성의 선택과 주인을 배반한 노비를 대부분 이들이 빼앗아 차지하므로, 이를 두고 향간의 속담에 ‘현재 조정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신하들이 폐조 때와 다른 점은 얼굴이 바뀐 것 밖에는 없다.’하고 있습니다.”<sup>32)</sup>라고 한 내용 또한 사정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쇠소리가 거세게 나고 있다고 시대를 진단한 이득운은 『현금동문류기』<sup>33)</sup>에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악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평조, 낙시조,

31) 『인조실록』 9권, 3년(1625) 6월 19일(을미), 『국역인조실록』 4, 66~67쪽.

32) 『인조실록』 19권, 6년(1628) 8월 19일(정미), 『인조실록』 9, 32~37쪽.

33) 이득운, 『현금동문류기』, 『한국음악학자료총서』 15, 은하출판사, 1989.

계면조, 우조를 사조체(四調體)라 하였고, 계면조에 대하여 “비애원한 애모 감격(悲愁怨恨 哀慕感激)”을, 우조는 “청량고상(淸亮高爽)”을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별곡으로 <여민락>, <영산회상>, <보허사>, <한림별곡>, <감군은>을 제시하기도 하고, <한림별곡>은 제외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신희의 노래에서 말한 <보허자>와 <여민락>은 별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우조와 계면조는 사조 가운데 두 조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상성을 하지 말라는 경계는 당시 악곡의 변화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2) 궁정 주변 인물과 외부 세력의 연결과 관련한 시가

『청구영언(진본)』 『만황청류』에는 첫 번째와 88번째에 다음과 같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들의 정체에 대하여 궁금증을 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작품이 첫머리에 실린 이유가 궁금하고, 88번째 작품의 맥락이 궁금해지는 것이다.

蔓-001

江原道 皆骨山 감도라 드러

鑰店절 뒤헤 우둑 선 전나모 굿헤

송구루허 안즌 白松骨이도 아프려나 자바 **질드려** 똥 山行 보내는디

**우리**는

새넌 거러두고 **질못드려** 흐노라

蔓-088

중놈도 사름이냥혀여

자고 가니 그림드고

중의 송낙 나 베우고 내 쪽도리 중놈 베고 중의 長衫 나 덥습고 내 치마란

중놈 덥고 자다가 씨드르니 들희 스량이 송낙으로 흐나 쪽도리로 흐나

### 이튿날

흐던일 생각하니 흥글항글 흐여라

첫 번째 작품의 핵심은 유점사라는 절과 새 님의 연관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연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유점사는 조선 태종 때에 태조의 진영을 모신 곳으로, 세조 때에는 왕이 직접 거동하기도 하고 세조 13년(1467)에는 승려 학조(學祖)에게 유점사를 중창하도록 한 바 있다.

정업원의 못 여승들이 금강산에 유점사가 있음을 듣고서 이를 핑계하며 때를 지어 달려가므로, 사헌부가 듣고서 서리를 보내 회양(淮陽)에 잡아 가두었는데, 이날 육관 유생(六館儒生)들이 이를 들어 상소하여 정업원을 혁파하기를 청하니, 상이 비답하였다.

“내가 비록 불민하지만 조금 학문을 알고 있어 이교가 허탄한 것임을 모르지 않는데 감히 존송하여 받드는 짓을 하겠는가. 이번의 유점사의 일은 한갓 나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께서도 모르시는 일이다. 이는 반드시 중간의 요망한 여승의 소위임이 분명하다. 비록 향당의 자호(自好)하는 자일지라도 또한 감히 제 마음을 스스로 속이지 않는데, 하물며 신민을 맡고 있는 내가 어찌 감히 꾸미는 말을 하여 제생들을 속이고 위로 황천을 속이겠는가. 정업원이란 것이 비록 이름이 바르지는 못하지만 창건한 지 이미 오래이어서 지금 갑자기 혁파하기는 어렵다. 제생들은 나의 뜻을 잘 알라.”<sup>34)</sup>

대사간 김상헌(金尙憲), 사간 정종명(鄭宗溟), 헌납 김시양(金時讓), 정언 윤지(尹墀)·김반(金槃)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중략)...

“잡인들이 내통하는 조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듣건대 무너는 가장 요사스러운 자여서 반정한 뒤에 변방 지역으로 멀

34) 『선조실록』 8권, 7년(1574, 갑술) 5월 11일(갑신).

리 유배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사유(赦宥)를 받음으로 인해 서울에 돌아와서 다시 궁궐(宮掖)과 길을 통하고 있다고 점차 말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가 내사에서 도첩을 받는 것이 구례이기는 하지만 본래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내사의 관속들은 대부분 궁궐과 연관이 있는데, 이들이 속여 현혹하는 꾀를 부린다면, 그 폐해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폐조 때는 요승이 궁중에 드나드는 것을 금하지 않다가 마침내 화단을 전가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즈음 유점사의 승려가 몰래 본궁에 들어와 외람되게 인문(印文)을 찍어내어 국가의 법을 범함으로써 전하께서 난처한 점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보다 큰일이 있게 된다면 장차 어떻게 그 말류의 폐해를 금할 수 있겠습니까.<sup>35)</sup>

신들이 삼가 들건대, 무녀들 가운데 가장 요사스러운 자를 반정한 뒤에 변방 지역으로 멀리 유배시켰는데, 지난번에 사면령이 내리자 서울로 돌아와서 다시 궁궐과 교통하여 조금씩 말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이 내수사에서 도첩을 받는 것이 예전의 구례이기는 하지만 본래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내수사의 관속들은 대부분 궁궐과 연결되어 있는바, 이들이 혹 내통하는 길을 열어 현혹하는 계책을 성사시키게 된다면 그 폐해를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폐조 때에는 요사스러운 무녀가 궁중에 드나드는 것을 금하지 않다가 끝내는 망극한 화단을 초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즈음에는 유점사의 중이 몰래 새 본궁 하인의 집에 숨어들어가 함부로 비위를 저지르기를 도모하다가 범망을 범함으로써 전하를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보다 더 큰일이 있게 된다면 장차 어떻게 그 말류의 폐해를 금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염려가 지나친 듯하지만 이 일이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대체로 무격의 귀신에 관한 일과 부처의 화복에 관한 말에 이르러서는, 말세 이래로 빠져드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부녀자의 경우에는 그 성품이 더욱 미혹되어 믿는 경향이 있어 빠져들기가 아주 쉬운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

35) 『인조실록』 권7, 2년(1624) 9월 13일(갑자), 『국인조실록』 3, 20~21쪽.

니다. 이에 향간의 부녀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병폐에 걸리고 있는바, 궁궐 안이라고 해서 어찌 유독 그렇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들이 걱정하는 여섯 번째 것입니다.<sup>36)</sup>

88번째 작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일정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놓여 있다. 실제로 궁정의 내밀한 일에 대하여 일반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거니와 특히 광해군 시절의 나인의 행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면, 엄밀한 검증을 통하여 『만횡청류』의 맥락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들건대, 산승 몇 사람이 여염을 출입하면서 폐조의 나인과 상간(相奸)하는데, 임해군(臨海君) 숙노(李蓀奴)의 집을 약속 장소로 하여 무시로 왕래하면서 며칠씩 묵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이기 에 즉시 부리(府吏)를 보내는 한편 포도대장에게 통고하여 체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산승 4인이 그 집 방안에 누워 있었으며, 여인의 옷가지와 승인의 납의(衲衣)가 한 보자기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또 인간 10여 명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나인이 안에서 서로 통한 내용이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여노를 추문하니, 숙노의 처 필복(必福)이라는 자가 늘 어둠을 틈타 이곳에 와서 잤다 하였습니다. 조금 있으니 필복이란 자가 말을 타고 들어오기에 붙잡아 추문하니, 현재 보모상궁으로 있다고 자칭하였는데, 아직 끝까지 캐물지 못했습니다. 그 말의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상궁이라면 너무도 놀라운 일기기에 신들은 서로 돌아보며 실색하였습니다.

어찌 청명한 시대에 이렇듯 혼조와 같은 일이 있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는 모두 궁금이 엄하지 못하여 나인이 사사로이 서로 출입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유사로 하여금 필복 및 승려들을 국문하

36) 김상헌, <諫院八漸筭子> 『청음집』 제17권, 『국역청음집』 4, 9~10쪽.

여 사실을 밝혀내 그 죄를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체포한 승려를 우선 추문하도록 하라.”

하였다.<sup>37)</sup>

신들이 중과 필복(必福)이 사통한 일에 대해서 자세히 논계하여 성상의 비답에 붙잡은 중을 우선 죄를 다스리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중에 대해서는 응당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필복이란 자가 과연 나인이라면 제멋대로 대궐을 출입하며 산승과 서로 만난 실상을 캐묻지 않을 수가 없으니,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풍속은 승과 속의 구별이 분명하여 일반 백성의 집안에서도 여인과 뒤섞여 지낼 수가 없거늘 더구나 서울 안에서 또한 나인과 함께이겠습니까. 남녀의 옷가지가 한 보따리 속에 있었으며 주고받은 언찰이 한둘이 아니니, 그 뒤섞여 지내면서 간통한 자취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만 다스린다면 이는 이른바 부드러운 땅에 나무를 쫓는 격이니, 또한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심한 악행으로, 신들은 성상께서 들으시면 필시 크게 놀라고 즉시 엄히 추국하라는 하교를 내리시리라고 여겼는데 죄를 다스리는 명이 나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니, 이는 신들이 의혹이 없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청컨대, 필복의 죄도 아울러 다스려 한편으로는 혼탁한 풍속을 바로잡고 한편으로는 대궐의 출입을 엄히 하심으로써,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새로 교화를 펼치시는 초기에 의아한 마음을 갖게 하지 마소서. …”

하니, 답하기를,

“…이른바 필복은 응당 내수사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sup>38)</sup>

이상의 몇몇 공변된 기록을 참조할 때 17세기 전반 궁정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향유되고 있었던 일군의 작품을 지적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작품

37) 『인조실록』 권13, 4년(1626) 7월 7일(정축) 『국역인조실록』 6, 90쪽.

38) 『승정원일기』, 인조 4년 병인(1626), 7월 8일(무인), 『승정원일기』 인조 10, 22~23쪽.

들이 17세기 후반이나 18세기 전반까지 연행의 레퍼토리로서 존재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구체적 실상이 『청구영언(진본)』의 「무명씨」에 수록된 작품이나 「만황청류」의 일부 작품일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사행역관의 위상과 가객으로의 전환

사행 등으로 중국으로부터 물화를 무역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소현세자가 귀국할 때에 많은 물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세자가 명령을 내려 채단(彩段) 4백 필, 황금 19냥을 호조로 돌려보냈다. 세자가 돌아올 때에 북경의 물화를 많이 싣고 왔으므로 사람들이 매우 실망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 명령이 있었다.<sup>39)</sup>

사행에서 역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들이 물화를 무역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었다. 이미 17세기 전반에 역관의 폐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역원(司譯院)이 도제조와 [이원익(李元翼)]제조와 [이정귀(李廷龜) · 이시언(李時彦)] 뜻으로 청하기를,

“조종조의 구례에 의하여 역관 등이 연경에 가는 데 부록(付祿)되는 것을 모두 시강(試講)의 출사 날짜로 계산하여 모리배들이 물화를 무역해 바쳐 경영을 독차지하는 폐단을 막아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업(業)을 수련할 의도가 없는 자는 법을 세워 권장하고 경계하는 것은 옳지만 공적으로 무역하여 물품을 바치는 길을 금지하는 법을 설치해 막는 것은 너무나 좁지 않겠는가. 서책은 어람하는 물건이고 염초(焰硝)는 적을 막는 기구이며, 금은 역시 국가의 용도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없어서는 안

39) 『인조실록』 권46, 23년(1645) 3월 9일(임진), 『국역인조실록』 19, 155쪽.



될 것이니, 이처럼 일체로 의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 건은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역관 등의 간사한 습성이 이때에 극도에 이르렀다. 그중 조금 넉넉한 자는 궁금의 연줄을 잡아 물화를 무역해 바쳐 은상을 차지하였는데, 크게는 품계나 직책을 제수 받고, 적게는 연경에 가는데 부록되는 등도모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이 비록 죽을 죄를 짓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까지 하고 있으니, 어찌 매우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사역원 도제조와 제조는 대신과 재신이다. 이들이 당시의 폐단을 마음 아프게 여겨 사유를 갖추어 계청하였으나 성상이 오히려 이와 같이 분부하였으니 폐단을 장차 구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어떻게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sup>40)</sup>

그 가운데 시가사의 추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인물이 장현(張炫)<sup>41)</sup>이다. 장현은 김수장의 『해동가요』 『고금창가제씨』에 허정(許琤)에 이어 두 번째로 올라 있는 인물이다.

효종 7년(1656) 인평대군(1622~1658)이 상사로 사행할 때 장현이 종이 품의 가의(嘉義)로 수역(首譯)으로 참가하고 있다.<sup>42)</sup> 사행의 기록인 『연도기행(燕途紀行)』에서 9월 11일(병진)에 전둔위(前屯衛)에 묵게 되었을 때 장현이 소 한 마리를 바치므로 일행에 나누어주었고, 9월 18일(계해)에 옥전현(玉田縣)의 동관리(東關里)에 묵을 때에 역관 변승형(卞承亨)이 소 한 마리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어서, 의주를 지나 연경으로 가는 여정의 경비 일부를 이들 역관들이 담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현은 동생 찬(燦)과 함께 연경을 자주 드나든 역관이었으며, 상사

40) 『광해군일기』 권49, 4년(1612) 1월 11일(병오).

41) 김양수, 『조선 후기 중인집안의 활동연구: 장현과 장희빈 등 인동장씨 역관가계를 중심으로』, 『실학사상연구』(상)(하) 1, 1990, 25~47쪽, 2, 1991, 41~62쪽.

42) 『松溪集』 권5, 『한국문집총간』 속35, 민족문화추진회, 2007, 252쪽.

로 사행을 간 인평대군과 밀접한 관계였다. 딸이 궁인으로 있었고, 숙종 때에 희빈이 된 궁인 장씨는 장현의 종질녀였다. 경신년(1680) 인평대군의 아들인 정(楨)과 남(栢)이 출척될 때 장현 집안도 유배의 길에 오르는 등 폄척되었다. 『숙종실록』 등에 희빈의 오빠인 장희재의 첩 숙정(淑正)이 당시에 노래를 잘 부르는 것<sup>43)</sup>으로 나온다.

장현의 다음 시조는 병자호란과 관련된 것이라 풀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무렵의 연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鴨綠江 히진 후에  
 에엿분 우리 님이,  
 燕雲 萬里를 어디라고 가시논고.  
 봄풀이  
 프르고 프르거든 卽時 도라 오소서

- 『청구영언(진본)』 221

이에 앞서 장현은 효종 4년(1653) 사행의 역관으로 수행하여 삼화(蔘貨)를 많이 가져갔다고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데, 대론(臺論)에 대하여 당시 궁인의 아버로서 왕의 비호를 받았고, 인평대군이 상사였기 때문에 인평대군과 더욱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sup>44)</sup>

장현과 숙정의 예에서 보듯 사행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이들 역관들이 직접 가자로 활동하거나 숙정과 같은 가기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역관들은 당시의 권력의 핵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정치·사회의 변동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인평

43) 『숙종실록』 권17, 12년 12월 10일(경신).

44) 『효종실록』 권11, 4년(1653) 윤7월 2일(을미).

대군의 아들인 정·남의 행적과 장현의 자식들이 이어져 있었고, 허정을 포함하여 이들이 경신년(1680)의 정치적 사건에 연계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들 가자와 이들의 연회 자리에서 향유했던 레퍼토리에 대한 관심이 17세기 후반 시가사의 한 축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혹여 『청구영언(진본)』 무명씨분에 수록된 작품이 이런 실마리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4. 소결

지금까지 『광해군일기』와 『인조실록』의 관변 기록을 바탕으로 개별 문집에 기록된 내용을 동시에 읽은 결과를 중심으로 17세기 전반 정치·사회 변동과 관련하여 시가사의 추이를 점검하였는데, 전체적인 줄기와 흐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바람에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증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에서 가기를 통한 레퍼토리의 교류는 가기의 계보와 그 지역적 기반과 관련한 레퍼토리의 정리와 환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사부에 대한 예우와 시가사의 추이는 사상사적 맥락과 연결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고, 무반의 시가 향유와 그 흐름에 대해서는 개별 대상을 통한 진전된 성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변화와 관련한 시가사의 과제에서 제기한 기상의 저장 문제와 상시·우국의 태도는 정치·사회 변동과 관련하여 내면정서의 변화 과정을 섬세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고, 궁정 주변 인물과 외부 세력의 연결과 관련한 시가의 이해는 자료의 확충과 『청구영언(진본)』 「만황청류」와 「무명씨」에 대한 진전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사행역관의 위상과 가격으로의 전환은 17세기 후반 이후의 사정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방향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17세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발판으로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시가사의 추이를 짚어낼 수 있는 지남(指南)을 마련하는 일이 새로운 과제로 제기된 셈이다. 지속, 변화, 새로운 시각 등에 대한 정밀한 검증과 상호 연관에 대한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광해군일기』.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인조

『영조실록』.

『인조실록』.

『효종실록』.

姜籀, 『竹窓集』, 『한국문집총간』 속14.

金尙憲, 『淸陰集』, 『국역청음집』 4.

柳夢寅, 『於于集』, 『한국문집총간』 63.

李得胤, 『현금동문류기』, 『한국음악학자료총서』 15(은하출판사, 1989).

李民宥, 『敬亭集』, 『한국문집총간』 76.

李滄, 『松溪集』, 『한국문집총간』 속35(민족문화추진회, 2007).

李頤命, 『疎齋集』, 『한국문집총간』 172.

李廷龜, 『月沙集』, 『한국문집총간』 69.

曹友仁, 『頤齋集』, 『한국문집총간』 속012.

許筠, 『惺所覆瓿藁』, 『한국문집총간』 74.

김양수, 「조선후기 중인집안의 활동연구: 장현과 장희빈 등 인동장씨 역관가계를 중심으로」(상)(하), 『실학사상연구』 1, 1990, 25~47쪽, 2, 1991, 41~62쪽.

박준규, 「경변당가고-신자료 봉사부군일기를 주로 하여」, 『모산학보』 3, 동아인문학회, 1992, 신경숙 외, 『고시조문헌해제』, 2012, 500~501쪽.

이상원, 「조선후기 <고산구곡가>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서, 2004, 233~258쪽.

최재남, 「훈민가 보급의 경과와 그 의미」, 『고시가연구』 21집, 2008, 319~343쪽.

\_\_\_\_\_, 「관서·관북 지역의 시가 향유 양상」, 『한국고전연구』 24집, 2011, 31~72쪽.

\_\_\_\_\_, 「이정구의 가곡과 풍류에 대한 인식 고찰」, 『반교어문연구』 32집, 2012, 203~231쪽.

\_\_\_\_\_, 「<철령가>에 대한 반향의 두 시각」, 『국문학연구』 29호, 2014, 61~89쪽.

최재남, 『17세기 전반 시가사 이해를 위한 예비적 고찰-17세기 전반 정치·사회  
변동과 시가사(1)-』, 『한국시가연구』 39집, 한국시가학회, 2015, 5~35쪽.

ABSTRACT

The Changes and New Problems to understanding  
the trend of Siga in first half of 17th century  
- The Political-Social spectrum in first half of 17th century  
and the trend of Siga(2) -

Choi, Jae-nam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urvey the trend of Siga in first half of 17th century. In connection with the Political-Social spectrum in first half of 17th century, The trend of Siga is very multifarious and meaningful. And we are able to expect the new trend of Siga in second half of 17th century.

The trend of Siga in first half of 17th century is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re are various kinds interchange of repertoire in proportion to reestablish the Yeok(女樂).

Second, There is important honorable treatment to master in factions, and the separation of confrontation of Siga is extended.

And the third, there is the change of position of the military nobility and the refinement of military nobility is connected the second half of 17th century.

The new trend of Siga in first half of 17th century is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re are two tendency between an attitude of feeling anxiety about the dejection of spirit of Sadaebu(士大夫) and one's intense patriotism or indignation of the military nobility(武班).

Second, We are able to comprehend 『Mumyungssi(無名氏)』 and 『Manhwoing-cheongryu(蔓橫淸類)』 of 『Cheongguyeongeon(靑丘永言)』 in connection with the women of the court and outer men specially bonze of Yujeomsa(유점사).

And the third, we are able to attention to the role an official interpreter and the transposition to a singer.

**Key Words** first half of 17th century, Ye oak(女樂), master, faction, the military nobility, patriotism, indignation, Yujeomsa(유점사), official interpreter, singer.

논문투고일 : 2015. 10. 29

심사완료일 : 2015. 12. 10

게재확정일 : 2015. 12. 15